

인생의 비결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

백화현 관악중학교 교사



여민 옷깃 사이로 헛헛한 바람이 파고듭니다. 그 바람 따라 허공을 이리저리 떠돌다 가뭇없이 사라져 가는 나뭇잎. 하염없이 그 끝을 쫓다 보면 퀘스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살고, 죽고, 사랑하고, 떠나고... 몇천 년, 아니 몇만 년 동안을 질림도 없이,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도 삶은 늘 새롭습니다. 언제나 의문입니다. 왜 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뭇머뭇 두려움이 입니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삶을 떠나는 순간, 나는 나에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아찔한 일입니다. 여기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인 어느 천재 수학자, 불가항력이던 나찌에 도전했던 어리석은 독일 청년들. 그들의 삶을 엿보며, 마른 가지에 낙엽만이 무성한 늦가을, 우리의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앞날을 더듬거려 봅시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 외로운 수학 천재 이야기》

이포스플러스 독시아디스 지음 | 정희성 옮김 | 생각의나무 | 296쪽 | 값 9,800원

이 책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 외로운 수학 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첫사랑이자 단 한 번뿐이었던 이즐데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기에 나서지요.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골드바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 문제는 얼핏 쉬워 보이면서도 250년 동안 그 누구도 증명해 내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수학 천재로, 열아홉 살에 베를린 대학을 졸업하고 스물 넷의 나이에 뮌헨 대학의 교수까지 된 그가 이 문제를 증명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그의 삶은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광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남들 몰래 혼자서 연구합니다. 연구과정에서 발견해 낸 중간 성과물에 대해서도 행여 남들이 그걸 활용해 먼저 그 증명에 성공할까봐 발표도 안 하고요.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어 교수직도 사임하고, 식구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조차 아까워 혼자서 별장에 숨어 지내며 평생을 그 문제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 그러나 결국 어떠한 것도 발표하지 못한 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책은 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강하게 빨아들여 수학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성공한 동생들과 이루지도 못할 목표에 삶을 송두리째 바쳐 버린 형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의구심도 툭툭 털어 냅니다. '인생의 비결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 여기에 동의해야 할지 말지, 이 작품을 더욱 꼼꼼히 읽으며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중학생 이상에게 읽기를 권합니다. **추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임예솔 지음 | 유미영 옮김·정준훈 그림 | 푸른나무 | 120쪽 | 값 6,500원

1943년 독일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1980년대 우리 대학가를 감동시켰던 책. 군부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행여 옆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 책인 듯 시치미 뚝 떼며 읽던 책. 그 책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표지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생하게 펼쳐지는 삽화와 사진들이 당시의 긴장된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립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과 독일의 부흥을 외치며 미친 듯이 세계를 전화 속으로 몰아넣었던 나치 시대의 독일. 그러나 모두가 광기에 휩싸여 야수처럼 날뛰기만 하는 때에도, 사태의 본질을 꿰어보고, 인간의 선한 정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가 봅니다. 한스와 조피, 백장미단과 그들을 지도했던 후버 교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채, 나치의 폭력을 세상에 고발하고, 독일인이 자신의 이성과 선한 의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활발히 지하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나치의 횡포가 절정에 달하던 1943년, 그들은 그들의 삼엄한 감시망에 걸려 하나씩 처형되고 맙니다.

거대한 공룡에 맞서 싸우려는 어린 아이처럼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그들은, 과연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웠던 걸까요? 삶과 죽음, 이상과 현실, 안일에의 욕망과 진실과 선을 향한 욕구, 그 틈바구니에서 바둥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